



고 강은기 사장

한 인쇄인의 타계에

유력인사 줄지은 이유는

지난 11월 10일 모 인터넷 신문이 한 인쇄인의 죽음을 보도하자 기사 하단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3일 동안 100여건이 넘게 남겨졌다.

또한 보라매 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근태, 장영달, 심재권, 이강래, 이창복 의원 등 이른바 재야출신 정 관계 인사들의 화환이 도착해 고인의 지난 이력을 말해주고 있었다.

인터넷상의 짙막한 글이나 조화로 산 자들의 예우를 받은 인물은 고(故)세진인쇄 강은기 사장. 을지로 중앙극장 건너편 골목길을 지나 마스터 기계 두 대가 전부인 조그마한 인쇄사를 운영했던 고(故)강은기 사장에 대한 그들의 예우는 평소 고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이다.

암울했던 유신 시절부터 고인은 돈벌이도 되지 않을뿐더러 인쇄비 떼이기가 쉬운 재야단체의 인쇄물을 도맡아서 처리했다.

세진인쇄도 초창기 일반 인쇄사들처럼 재야 인쇄물이 아닌 일반 홍보물이나 카탈로그, 명함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출발했다. 강 사장이 재야 단체인사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친구인 성남주민주교회 이해학 목사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의 인쇄물을 주로 맡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신민당사를 접거했던 YH 여성 노동자들의 유인물, 명동 3.1시국선언서, 김재규관련 유인물, 서울대생 김세진 자료집, 5.3 인천사건 유인물 등 굵직한 시국사건 유인물은 어김없이 세진인쇄사를 통해 흘러나왔다.

이처럼 세진인쇄사에 맡겨지는 유인물의 농도가 짊어지면서 인쇄사에는 기관원들이 상주하기에 이르렀고, 인쇄사의 밤, 낮이 바뀌기 시작했다.

낮에는 상주하는 기관원들 때문에 조용하던 인쇄 공장은 밤이 되면 낮에 못다한 인쇄물을 소화해 내기 위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각종 유인물이 세진인쇄사를 통해 인쇄됐지만 정작 고인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고인이 인쇄물 제작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재야단체들 생명력이 길지도 않았으며, 재정 여건 또한 그리 좋지 않았고, 고인 역시 장부로만 기록을 해 놓을 뿐 제작비를 재촉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고인은 제작비용은 제작비용대로 못 받았을 뿐더러 인쇄도중에 정보기관에 끌려가기 일쑤였고, 결국 1980년 '김재규관련 유인물' 제작 건으로 보안사에 연행돼, 서대문구 치소에 수감, 1년의 옥고를 치렀다.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이라서 그렇지 일이야 많았지 뭐. 일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기관원들이 상주라도 하는 날에는 전화로 몰래 다른 인쇄사에 연결시켜 주기도 했으니 일량으로 치자면 우리도 좀 했지요."

고인의 동생으로 세진인쇄를 운영하고 있는 강은식 사장의 표현처럼 제작하는 양에 비해 인쇄사 운영은 어렵지만 했다. 이처럼 목에 풀칠하기 바쁜 인쇄사였지만 80년대 중 후반부터 6·10항쟁 등 민주화의 바람을 등에 업고, 직원수가 5명에 이르는 등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진인쇄는 또 한번의 위기를 맞게 된다.

'좋은 시절 오면 세진인쇄가 제일 많이 돈을 벌 것'이라는 골

목의 소문과 달리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인쇄사를 운영하기가 녹록치 않았다.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집회가 점점 없어지고 아울러 단체들도 하나 둘 통합되면서 세진인쇄에서 주문 받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또한 암울했던 시절 세진인쇄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인쇄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아울러 세진인쇄에 많은 빚을 지고 있던 단체들이 세진인쇄가 아닌 다른 업체로 주문을 틀기 시작한 것이다.

세진인쇄로서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지만 이 같은 일은 지난 1996년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한번 더 벌어졌다.

재야인사들의 국회진출이 붓물 터지듯 이뤄지면서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겠다는 인사들이 고인을 부추겨 별도의 기획실을 차린 것이다.

"당시에는 번듯한 건물에 기획실을 따로 차리면서 몫 돈 한 번 만지는 줄 알았지. 근데 선거 당시에 기획실 명의로 돈도 주지 않고 인쇄물을 가져간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니깐 싹 사라지는 거야."

많은 배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세진인쇄를 잊지 않고 찾는 이들이 있다. 김근태, 장영달 의원의 경우 옛정을 잊지 않고 아직도 세진인쇄를 찾고 있으며, '참여연대'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도 세진인쇄의 단골 고객이다.

고인의 마음속에 담은 외상장부

마스터 기계 2대가 말해주듯 세진인쇄의 사정은 그리 넉넉지 않다. 넉넉치 않은 살림은 지난 5월 회장암 진단이후 병원비 충당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태이다.

뜻 있는 지인들 사이에서 후원금을 걷어 2천여 만원이 전달되기도 했지만 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평소 고인의 신세를 져던 단체들이 지금이라도 빚을 갚자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이 종료된 상태이다.

"장부라도 있으면 가서 빚 독촉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어렵다. 저번에 모 방송국에서도 와서 외상장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외상장부는 형님이 먼길 가시면서 함께 가져간 모양"이라며 고인의 뜻을 따를 것을 내비쳤다.

이용우 기자(photoyw@print.or.kr)